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47호

<p>I '방울토마토', 이산화탄소(CO₂) 처리로 신선도 유지</p>	
<p>II 「농약안전사용안내서」 수정 보급</p>	
<p>III 국산 버섯, 브라질 수출 길 열려</p>	
<p>IV 국산 딸기, 호주 시드니에 첫 수출</p>	

농수산물 수출 Zoom In 47호 2017. 2. 2(금)

‘18.1.31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7.6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p>↑ 32.4%</p> <p>115 백만불</p>	<p>↑ 9.7%</p> <p>442 백만불</p>	<p>↑ 50.7%</p> <p>201 백만불</p>
<p>⊕ 인삼류, 배, 김치</p> <p>⊖ 채소종자, 장미</p>	<p>⊕ 라면, 음료, 커피조제품</p> <p>⊖ 궤련, 비스킷, 조제분유</p>	<p>⊕ 참치, 김, 삼치</p> <p>⊖ 오징어</p>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p>중국</p> <p>102백만불(30.0%)</p>		<p>↑ 김(92%), 설탕(61%)</p> <p>↓ 인삼류(△6%), 라면(△2%)</p>
<p>미국</p> <p>92백만불(28.9%)</p> <p>▶FOOD BAZAR 연계 신고배 판촉(1.13~2.28)</p> <p>▶Jo'sMarket 연계 인삼제품 판촉(1.26~4.1)</p>		<p>↑ 김(70%), 라면(58%)</p> <p>↓ 궤련(△44%), 오징어(△36%)</p>
<p>홍콩</p> <p>35백만불(22.6%)</p>		<p>↑ 궤련(97%), 딸기(9%)</p> <p>↓ 비스킷(△설53%), 설탕(△11%)</p>
<p>ASEAN</p> <p>143백만불(21.9%)</p> <p>▶베트남 kleve fruit 연계 궤감 판촉(2.1~2.14)</p> <p>▶태국 TOPS 연계 신선딸기 판촉(2.2~3.3)</p>		<p>↑ 음료(41%), 딸기(25%)</p> <p>↓ 궤련(△58%), 참치(△46%)</p>
<p>EU</p> <p>48백만불(14.3%)</p> <p>▶프랑스 까르푸 등 연계 한국종합식품 판촉(1.26~3.31)</p> <p>▶체코 Makro 연계 한국종합식품 판촉(2.7~2.24)</p>		<p>↑ 라면(52%), 참치(41%)</p> <p>↓ 커피조제품(△72%), 바지락(△17%)</p>
<p>일본</p> <p>164백만불(13.8%)</p> <p>▶마르큐 연계 한국종합식품 판촉(1.16~6.30)</p> <p>▶코스모스약품 연계 한국종합식품 판촉(1.20~2.28)</p>		<p>↑ 참치(95%), 궤련(15%)</p> <p>↓ 김(△24%), 소주(△6%)</p>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18. 1. 1 ~ 1. 31



- 팡이버섯

◇ 대만의 탕, 찌개류 등 부재료 수요 증가로 수출량 급증

2,425천불(50.4%)

▶ 주요 수출국 : 미국(936천불, 36.7%), 대만(269, 100.0), 캐나다(241, 43.5)

- 닭고기

◇ 베트남 및 중화권의 설 명절 특수를 앞두고 수요 증가



▶ 주요 수출국 : 베트남(1,514천불, 57,091.3%), 홍콩(365, 401.9), 중국(73, 10,988.1)

2,973천불(138.1%)



- 참치

◇ 신규 수요 발생에 따른 에콰도르 수출량 증가

58,690천불(69.7%)

▶ 주요 수출국 : 일본(20,635천불, 95.0%), 에콰도르(10,519, 3,417.6)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5,7)

농진청 이슈



찾아가는 수출 현장 종합 컨설팅

농촌진흥청에서는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비관세장벽 등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합동 맞춤형 종합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2017년 40회)

올해에는 2월 '딸기 선도유지기술 지원'을 시작으로 주요 원예 수출단지와 신규 유망 관리단지 중심의 단계별 진단과 분석·처방을 통해 '컨설팅 모범모델'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063-238-0684)

'방울토마토', 이산화탄소(CO₂) 처리로 신선도 유지

농촌진흥청은 방울토마토 수확 후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면 부패율이 줄어들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생과로도 많이 찾지만 요리용, 학교 급식용 등으로도 수요가 많은 방울토마토는 보통 완전히 빨갛게 익은 상태로 수확하기 때문에 쉽게 물러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물러짐을 억제하거나 선도 유지를 위한 기술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에서 확립한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상자에 담은 채로 아크릴 밀폐용기에 쌓아두고, 상온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20%가 되도록 처리하여 3시간 정도 둔 후 저장 또는 유통을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063-238-6512)



「농약안전사용안내서」 수정 보급

최근 對 대만 수출농산물 중 잔류 농약 초과 검출로 통관이 금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과, 배, 딸기, 대추, 들깨잎 등 5종의 농약 안전사용 요령을 긴급히 수정하여 보급하였다.

* 농사료(nongsaro.go.kr) > 영농기술 > 수출농업 > 수출국작목별 농약안전사용지침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063-238-3233)



☆ 농진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국산 식용 버섯, 브라질 수출 길 열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6년 11월 브라질 검역당국에 한국산 버섯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래 버섯류에 대한 위험 평가 관련 자료를 브라질에 제공하는 등 양국 검역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다. 2018년 1월 12일 한국산 식용 버섯이 브라질로 수출 가능한 것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하여 식물검역증명서만 발급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 '17년 버섯 수출 : 10,615톤(미국 4,815, 호주 1,695, 캐나다 1,176, 기타 2,929)

국산 딸기, 호주 시드니에 첫 수출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와 4년간의 협상 끝에 검역요건 협상을 타결하고 2017년 12월 13일 국산 신선 딸기 호주 수출검역요령을 최종 고시한 바 있다. 고시와 동시에 수출농가와 선과장을 등록하고 재배지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여 국산 신선딸기 생과실 304kg을 금년 1월 9일 호주로 첫 수출을 하였다. 농업 선진국인 호주 시장에 딸기를 처음 수출함으로써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시장을 선점한데 그 의의가 있다.

▶ '17년 딸기 수출 : 4,788톤(홍콩 1,993, 싱가포르 1,296, 태국 648, 기타 851)



제3차 전자검역증(e-PHYTO) 글로벌 심포지움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8.1.21~26(6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주관 제3차 전자검역증(e-PHYTO) 글로벌 심포지움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IPPC 허브 시범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국가별 전자검역증 여건과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전자검역증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참여 국가 간에는 현재 수출검역 시 발행하고 있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